POLITICS

2025년 3월 4일 화요일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변성완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문금주 "텃밭·험지 구조 극복" 부산 강서구와 협력의원 협약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위원장 문금주)와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변성완)는 지난 28일 상호협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협력의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부산 강서구에서 열렸으며, 문금주 위원장과 변성완 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와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건의와 정책 제안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의 약속이 선심성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텃밭과 험지를 양산하는 정치구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공공병원 설립문제…' 토론회 전진숙, 5일 국회의원회관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사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 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내란종식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人(인) 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도하는 이번 포럼에는 1만5000여명이 참석해 내란 종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 출범을 주창했다.

'광주人포럼' 출범…"정권교체에 힘 모아야"

3·3 선언 "군부폭력 맞선 광주정신 기억… 尹 파면"
이재명 "광주서 시작된 외침, 대한민국 미래 여는 힘"
강 시장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승리… 광주 앞장"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광주人포럼'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人포럼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시민 1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3·3 광주선언'을 통해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 축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전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독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人포럼 출범식 및 3·3 광주선언에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광주에서 희망의 불꽃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한 나라, 더 안전한 사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광주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은 지도위원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위촉했다.

강기정 시장은 "계엄의 벽을 넘었고, 이제 탄핵의 강도 건너고, 민주정부의 문도 열 것이다"며 "그 길에 함께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앞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짓과 혐오를 일삼는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후회 없이 연대해야 한다"며 "뭉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란종식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시간이다"며 "민주정부를 통해서 책임 있게 개헌을 해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광주人포럼 출범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 박지원, 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 6·15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으로 보내고,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은 출범식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의 역사' 주제강연을 통해 "21세기 광주시민은 올바른 역사 의식가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광주는 지금껏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당당하게 광주시민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人포럼 상임대표로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노동일 광주 FC 대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 윤종해 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됐다.

공동대표로는 김보곤 DK산업 회장, 박신애 광주어린이집연합회장,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심재섭 전 북구의회 의장, 위정순 광주시 여약사회장 등이 위촉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중앙선관위 견제·독립 놓고 여야 충돌

국힘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VS 민주 "감사대상서 제외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3일 서로 충돌하는 법안을 제각각 추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해석이다.

민주당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역공을 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립예술단체 정관 개정 '윤 정권 알박기'"

민형배 "문화예술계 독립성 훼손…기관장 임명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예술단체 5곳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를 밀어넣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체부는 기존 국립예술단체에서 임기가 남은 이사들을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5곳 통폐합 후 신설되는 국립공연예술단의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예술단 체장은 당연직 이사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후임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기존 정관 조항도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가 문화예술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사유화와 정치적 입맛에 맞는 '내 사람 심기'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조치가 윤석열 탄핵을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데, 문체부가 앞장서진 않았을 테니 대통령실이 배후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국립공연예술단 비당연직 이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7년에 5개 예술단체 후원회장 1명씩을 이사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발레단 후원회장인 송병준 컴투스 의장이 후원회장직을 유지하면 국립공연예술단 이사가 될 수 있다.

컴투스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2억원을 후원한 국내 게임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검찰은 송병준 의장의 불법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담양군수 재선거

이재종 예비후보 '머무르는 담양' 관광 혁신 공약 발표

이재종 예비후보(사진)는 2일 "천혜의 자연환경을 넘어 사람이 만든 담양의 가치를 더욱 품격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죽녹원, 관방제림, 소쇄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기존 관광지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복합휴양시설을 유치해 '지나가는 담양'에서 '머무르는 담양'으로 도약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개통을 통해 영남권 관광객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담양을 '내륙관광 1번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것으로 숙박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할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직접 '관광해설사'로 나서 담양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소개하며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관광객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재종 예비후보는 "낮과 밤이 모두 매력적인 담양을 만들겠다"며, "담양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담양이 전국에서 가장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최화삼 예비후보 "가구당 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 결선에 진출한 최화삼 예비후보(사진)는 3일 가구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계엄 여파로 군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역 상권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 캠프 개소식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기존 관광생태도시를 기반으로 지역 컨셉에 맞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특히 300억 예산을 투입해 종합스포츠타운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광주·전남 22개 시군 중 전국체전을 한 번도 못해본 곳이 담양이다"며

"전국체전을 유치해 지역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선거의 네거티브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전 선거에 출마했다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의 네거티브 때문에 범죄자로 몰렸다"면서 "이번 선거는 선거는 선거로 끝나면 지역 선후배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이현규 기자